



이상홍  
홈네트워크포럼 의장

## 홈네트워크 포럼



### 홈네트워크 산업 현황

홈네트워크 세계시장 규모는 2007년 1,026억 달러, 2010년에는 1,620억 달러로 연평균 19% 가량의 성장률을 보이고, 산업 분야별 성장에서도 기기 성장률의 강세 속에 서비스, 솔루션 분야의 큰 성장과 함께 게이트웨이와 서버 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블루오션이라는 시장성을 본다면 가히 놀라운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IT산업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꼭 선점해야 하는 핵심 시장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홈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가구 수는 PC 중심의 홈네트워킹 사용자와 인터넷 접속 공유, 원격검침, 가스화재 감지,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홈네트워킹과 인텔리전트 아파트를 포함하여 2005년 145만 가구에서 2006년 214만 가구를 넘어 2010년에는 1,04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추진 목적

2003년도 하반기부터 홈네트워크 시장을 조기 활성화 시키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신사업자, 가전사업자, 건설사업자, 서비스 및 솔루션 사업자,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총 망라되어 디지털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홈네트워크포럼'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홈네트워크포럼(의장 : 이상홍)이라는 통합된 표준화 기구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내 표준화 수립 기간을 단축하고, 국제 표준화 채택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TTA의 홈네트워크 관련 유관 포럼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홈네트워크포럼에서는 세계 디지털홈 서비스 및 시장동향에 맞는 개방형 기술표준 및 디지털홈 제품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의 중점적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유·무선 디지털홈 기술방식의 선택은 업계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디지털홈 기술 및 장비들이 상호호환성을 갖도록 중점 추진하고, 표준화 및 제품개

발의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 되어 수출 증대의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기술표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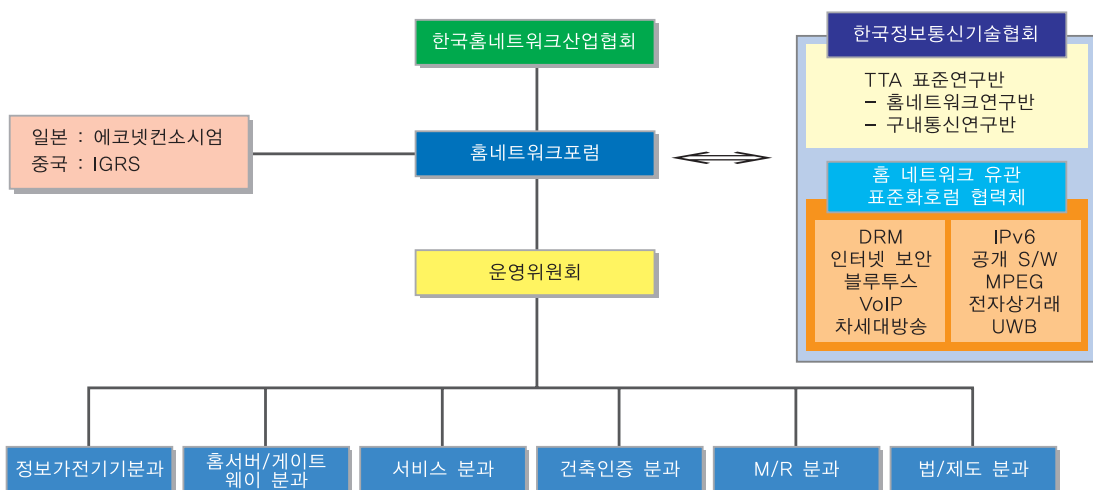
홈네트워크포럼은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거 환경에 적합한 가정 내의 홈네트워크 모델의 신뢰성, 호환성 등을 검증하고 산업체에서 준비 중인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수익성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시장 경쟁에만 의존할 경우 시장 분할로 인한 국내 업체 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내 표준의 최소화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TTA 디지털홈연구반, 구내통신연구반과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미들웨어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국내 표준으로 정착시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기술표준화 시 로열티 등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과도한 비용발생 시 독자 규범 검토 등, 가급적 로열티 없

는 표준화를 추진하되 차세대 규격의 사전 준비 및 진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주택조건 및 통신망 환경에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광대역 통합네트워크(BcN) 구축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 홈네트워크포럼 구성

홈네트워크포럼은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회장 남중수) 표준화 기구로 포럼 의사 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인 분야별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정보가전기 기 분과, 홈서버/게이트웨이 분과, 서비스 분과, 건축인증 분과 등 총 6개의 실무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 분과 내에는 세부 표준화를 추진키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홈네트워크포럼은 지난 2006년 5월 국제 표준화 협력 및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본의 ECHONET, 중국의 IGRS 등과 아시아 홈네트워크 협의회(Asia Home Network Council)를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다.



## 2006년도 홈네트워크 포럼 표준화 추진 현황

### • 표준화 추진 결과 및 현황

- 건축인증분과에서는 2006년도에 미래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공동 주택에 대한 전화,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방송,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세대단자함 표준화와 홈네트워크 배관/배선 표준화, 홈네트워크 월패드 매입 박스 표준 등 산업계에서 홈네트워크 시공 시 요구되는 기술 표준을 포럼 표준으로 완료하고, TTA에 제안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홈네트워크 시공 용어 표준화와 건축 설계/시공에 활용하기 위한 홈네트워크 관련 범례 및 심볼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된 표준을 홈네트워크 건물인증제도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 홈서버/게이트웨이 분과에서는 산업계에서 가장 표준화 이슈가 되고 있는 RS485 표준화를 추진키 위해 RS485 기반의 홈기기 제어 프로토콜 표준화 회의를 추진하여 제어방식 표준 방식을 폴링(Polling) 모드 확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제어방식 기반에서 메시지 규격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정보가전기기 분과에서는 무선 홈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가전기기 및 오토메이션 기기의 Zigbee 기반 프로파일 표준(안)을 작성하고 세부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정보가전기기 분과 내 난방제어 표준화 워킹그룹에서는 홈네트워크 난방기기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댁내 난방 시스템 제어 프로토콜 표준화'를 완료하고, TTA에 표준 제안을 완료하였다.

- 서비스 분과에서는 홈네트워크 사용자 시나리오 도출을 통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디지털 콘텐츠 보호 기술인 DRM 표준(안) 작성을 완료하고 표준을 검토 중에 있다.

### 〈홈네트워크 포럼 분과위원회 중점 추진 업무〉

분과위원회	추진업무
건축인증분과	- 건축, 구내배선, 리모델링 등 홈네트워크 건축 인프라 표준화 - 유무선 홈네트워크 건축 인프라 표준화
홈서버/게이트웨이분과	-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게이트웨이/홈서버/셋톱박스 규격 및 상호 운용성 연구
정보가전기기 분과	- 디지털홈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홈네트워크 중심기기 표준화 - 가정 내 디지털 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전기기와 통신기기의 인터페이스 규격 및 상호호환성 연구
서비스 분과	- 홈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환경 표준화 - 인프라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 및 솔루션 표준화
MR 분과	- 홈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BM) 발굴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조사, 검토

• 표준화 회의 및 기타 추진 현황

- 한국의 홈네트워크포럼, 일본의 ECHONET, 중국의 IGRS가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와 국제 표준화 협력 강화 및 선도를 위해 지난 2006년 5월에 협의회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3차례의 운영위원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아시아 홈네트워크 협의회 중장기 로드맵과 활동방향, 표준화 기술교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홈네트워크 관련 국제 행사인 ‘홈네트워크 글로벌 서밋’을 매년 개최하여 국내외 홈네트워크 기술 표준

화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발표를 통해 홈네트워크 표준 및 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금년(2007년)에는 ‘디지털 홈 세계로의 변화’라는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태평양 영업마케팅 총괄 소 칸 위 사장, 인텔 소비자가전그룹 윌리엄 레진스키 사장, 유럽 인티저 피터 콜브룩 기술본부장, 북미 CABA(Continental Automated Building Association) 론 짐머 대표, 두바이 알구레이 그룹 하템 알 시바이 CEO 등 23명의 국내외 홈네트워크·디지털홈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와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TTA**



2007 홈네트워크 글로벌 서밋

제 1차 아시아 홈네트워크 협의회 운영위원회



아시아 홈네트워크 협의회 발족식